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호  
2017년



Big Bend National Park, TX

Photo by Okchu K Lee

### 한인회소식

## 한인 여러분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



뉴멕시코주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문상귀  
인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표 한표에 담긴 열린 한인회, 화합하는 한인회에 대한 교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인회는 분열  
없이 화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 한인회장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인회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 시작한 지 벌써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4월 3일에 수고해  
오신 전직 회장단으로부터 한인회, 어버이회, 한국학교,  
정관위원회의 각 기관별로 인수인계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인회 임원단 구성과 이사진을 구성했습니다.  
17분의 임원과 김경숙 이사장을 비롯한 24분의 이사진이  
구성되었습니다. 함께 한인회장 후보에 나오셨던 민명희 님도  
부회장직을 수락해 주셔서 함께 일하게 돼 무엇보다도 기쁘고

## 2017년 5-6월호 내용

표지 | 한인여러분 | 문상귀 : 1

한인회소식 | 임원과 이사회 : 2

한인회소식 | 한인회 칼린더/한국학교소식 : 3

지역사회소식 | 한국전 용사제리차프만 추모식 : 5

지역사회소식 | 지역사회 지난소식 : 6-7

칼럼 | 지혜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 김기천 : 8

교단소식 | 2017년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소식 : 8

수필 | 그리움 | 이정길 : 9

부동산/생활상식 | 집을 듯보이게 하는 방법 | 김영신 : 10

수필 | 성가합창의 감동과 검증 | 이태길 : 11

생활상식 | 행복한 미국생활 #12 (공공보조주택) : 12

수필 | 주를 앙모 하는자 #1 | 김준호 : 14

특별기고문 | 뜨거울 땀 몰라요 | 차학주 : 15

성경공부 시리즈 #4 | 에베소서 3장 | 현용규 : 16

교단소식 | 동성애 이슈에 대한 한인총회 입장 : 18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19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20

## 한인회 임원과 이사회

뉴멕시코 한인회 임원단과 이사진이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임원진 구성-집행부 (총 17명 인선)

회장- 문상귀

부회장 5명 (수석 윤태자-한국학교, 어버이회 담당, 고산식-재무, 김진옥-봉사, 민명희-복지, 한광윤-기획, 예술)

사무총장- 박찬영

분과별 위원장

기획- 고길영, 봉사- 김진화, 예술- 이희정, 재무- 이영혜, 체육- 조재신

어버이회 총괄 회장- 조영희, 총무- 윤진옥, 재무- 박애나

한국학교 교장- 박영신, 교감- 정지예

### 이사회 구성 - 행정부 (총 24명 인선)

이사장- 김경숙

이사- 고진석, 김남선, 김철, 김태원, 김포영, 소냐, 손말레, 신동완, 신옥주, 이성희 (Mrs. Chavez), 이수신, 정양송, 조동훈, 조문성, 조한욱, 형재영, 홍순권, 당연직으로 고산식, 김진옥, 문상귀, 민명희, 윤태자, 한광윤

정관위원장- 김철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을 여러분 모신 이유는 분야를 맡은 부회장이 분과별 위원장과 협력하면서 원활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자 더 많은 분들이 한인사회에 연결되어 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되기 위함입니다. 제 자신 언제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한인사회를 위해 겸손히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꾸짖어 주시고 좋은 의견은 언제든지 서슴치 마시고 보태어 주십시오.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봉사단체로서 여러분 한분 한분의 크고 작은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결코 저희 임원 이사진 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교민분들이 원하시는 더 알찬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몇가지 큰 행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오후 5시에 한인회장 이취임식과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정기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는 아시안 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교민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른 시일 안에 한인회, 어버이회, 한국학교, 이사회의 기관장 연석회의와 뉴멕시코주 전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장 연석회의와 전직 한인회장님들 고문 연석회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고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인회에 교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상귀 올림



뉴멕시코 한인회 이사회를 마치고  
 뒷줄: 박찬영, 문상귀, 조동훈, 이수신, 조한욱, 김남선, 정양송, 김철  
 앞줄: 손말레, 김태원, 조문성, 김경숙, 윤태자, 이성희 (Mrs. Chavez)



## 한인회 캘린더

- 1) 4월 9일 첫 임원회
- 2) 4월 22일 한인회관 대청소
- 3) 4월 22일 Jerry Chapman 추도식에 참석
- 4) 4월 24일 첫 이사회
- 5) 4월 26일 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 6) 5월 10일 윤태자 수석 부회장으로 어버이회소풍
- 7) 5월 21일 아시안 축제
- 8) 5월 28일 한인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 9) 5월 31일 정풍자 전코원 회장 린스부페 식당으로 어버이회 초청
- 10) 6월 20~23일까지 박찬영 사무총장 한국 사무총장 연수에 참석



뉴멕시코 한인회 임원회 (4월9일)



봄맞이 한인회관 대청소 (4월22일)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 한국학교소식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

새 학기를 시작한 지 엿그제 같은데 어느새 5월,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번 학기에는 저희 한국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개설된 성인반으로 인해 새로운 선생님들과 수업을 진행하였고, 또 그만큼새로운 교실이 필요하여 한인회관 로비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염려로 시작한 수업이었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학생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최선을 다 해주신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라 생각하고, 또한 우리 뉴멕시코 통합 한국학교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알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멕시코 통합 한국학교는 이러한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늘 노력하며 더 나은 수업과 커리큘럼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한국학교에서 처음으로 '성인을 위한 한국어 숙성반'을 운영합니다. 고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7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수업은 누구나 단 기간에 한국어의 기초를 익히고 배우기 원한다면 대 환영입니다. 목요일 저녁반과 금요일 저녁반으로 운영되며 김소운 선생님께서 두 반을 맡아 주실 예정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캠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에서는 한국어 수업 및 문화 수업이 그날, 그날 주제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4일 마지막 날에는 한인회 윤태자 부회장님 댁에서 야유회를 겸한 현장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한글수업을 진행합니다.

- 기 간: 2017년 7월 31일 ~ 8월 3일, July 31<sup>st</sup> thru August 3<sup>rd</sup> 2017
  - 시 간: 오전 9:30 ~ 오후 2:30, at 9:30pm thru 2:30pm
  - 대 상: Pre K to 5<sup>th</sup> grade
  - 내 용: 한글, 한국 문화 체험(요리, 서예 등) 및 Field trip 1회
-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detail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 등 록: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 Contact: 교장 박영신 (505 506 6936)  
[NMKoreanlanguage@gmail.com](mailto:NMKoreanlanguage@gmail.com)
  - Tuition: \$60 (Second child is \$45.)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www.kaanm.com/home/kschool](http://www.kaanm.com/home/kschool)



## The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invites you to the 2017 Summer school with highly motivated and qualified teachers.

- Schedule: (choose one):  
**Thursday Class – June 8<sup>th</sup> thru July 27<sup>th</sup> (7 weeks)**  
**Friday Class – June 9<sup>th</sup> thru July 28<sup>th</sup> (7 weeks)**
- Time:  
**Thursday Class – 5:30pm -8:00pm**  
**Friday Class – 5:00pm – 7:30pm**
- Enrolling: 8<sup>th</sup> grade to Adults
- Tuition: \$80 materials may be extra.
- Subjects: Korean Basic grammar include in  
·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 Classes are held at the NM Korean Language School

Contact: [NMKoreanlanguage@gmail.com](mailto:NMKoreanlanguage@gmail.com)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www.kaanm.com/home/kschool](http://www.kaanm.com/home/kschool)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	---




##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http://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http://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Indian School Rd  
Americas Pkwy  
Marriott Dr  
I-40  
Americas Pkwy

## Japanese Kitchen

###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분, 6코스:40분, 8코스:50분)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http://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http://www.japanesekitchen.com)



## 한국전 참전 제리 차프만 용사 추모식에 한인들이 참여

4월 22일 오전 11 시 앨버커키 재향군인 기념공원(Veterans Memorial Park: 1100 Louisiana Blvd SE Albuquerque, NM 87108)에서 한국전 참전 재향군인회 회장이었던 Jerry Chapman 씨의 추모식이 있었다. 교회 대표 및 한인회 임원 26명이 참석했다. 신임 회장인 Stan Jarocki의 사회로 동료 Ken Moorhead 씨의 시편 23편 낭독과 기도가 있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에 이어 참석한 이들의 소개가 있고 난 뒤 점심을 함께했다. 식사 후에 한국전 참전용사 무공훈장 수상자인 Hiroshi 'Hershey' Miyamura 씨와 동료, 가족, 친구들의 추모 연설이 있었다. Stan 씨는 한인 사회가 모든 기념일과 특별 행사에 한국전 베테랑을 초청해 왔으며 참석한 한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박수를 보내주었다. 또한, 참석한 몇 명의 한인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뉴멕시코주 주지사인 Susana Martinez는 국가와 뉴멕시코주를 위해 헌신한 Jerry Chapman을 치하하는 내용의 표창장을 전달해 왔다. 표창장의 글에서 주지사는 앨버커키 재향 군인 기념공원 (Beteans Memorial Park)에 있는 한국전 기념물을 디자인 해 세운 공로와 명예훈장을 받은 미야무라씨를 기리기 위해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Chapter' 를 'Hiroshi 'Hershey' Miyamura, Medal of Honor, Chapter 82,ABQ,NM'으로 바꾸는데 애쓴 Chapman의 공로도 높이 평가했다.

지난 2월 4일(토) 82세로 소천한 그의 안장식은 장지인 Santa Fe National Cemetery(501 N. Guadalupe St. Santa Fe, NM 87504)에서 4월 24일(월) 오전 11시 15분에 진행했다. 제리 R. 차프만 (Jerry R. Chapman)은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Jennings High School을 졸업하고 미 해군에 입대 1955년까지 한국전 LST 692에서 자랑스럽게 복무했다. Reynolds Aluminum Packaging에서 40년간 근무한 후 Western Regional Sales Manager 로 은퇴했다.

13년 동안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협회에서 일했고 지난 3년간 회장직을 맡아왔다. 한인 사회는 언제나 한국 베테랑을 존중했다며 모든 기념일과 특별 행사에서 두 그룹이 함께 축하하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 했다. 연설 때마다 "Freedom is not free", 즉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언급한 그를 가족, 친척, 동료 특히 한인사회가 늘 기억할 것이다. ■



해군 복무시와 최근의 차프만 사진



추모연설을 하고있는 미야무라



추모식은 재향군인 기념공원 친교실에서 열렸다.



추모식을 마치고 미망인과 한인들이 함께



추모식 사회자 Stan Jarocki와 답례를 하는 미망인 Sandsa Chapman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3월-4월)

### 3월1일 한인회, 삼일절 기념식

한인회는 삼일절을 맞아 김영신 회장의 인도로 기념식을 가졌다.



### 3월11일 17대 한인회장 선거

3월 11일(토) 한인회관에서 시행한 제17대 뉴멕시코 한인회장 선거에서 문상귀 후보가 47표 민명희 후보가 42표를 획득 5표 차이로 문상귀 후보가 한인회장에 당선되었다. 전체 유권자 102명 중 총 8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마감 4시 직후 개표에 들어갔고 4시 12분에 개표가 마감되었다. 뉴멕시코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 신광순 위원장이 문상귀 씨가 제17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식 선포했다.



### 3월1일 조규자 전 한인회장 Sun-News, 독자 선정 사업체 1등 수상

라스크루시스 Sun-News의 2016년 독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최고상(Readers' Choice Awards), 텍스(Tax) 서비스 부문에서 조규자 전 한인회장이 운영하는 Kelly Tax & Accounting Svc Finance / Accountants 가 1등에 선정됐다. (Arizona Times March 1, 2017)



### 3월18일 김영신 회장 임기 마치면서 모임

김영신 한인회장은 3월 말로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3월 18일 오후 5시 30분 그동안 함께 일했던 임원, 이사, 봉사자들을 자택으로 초대해 정찬을 가졌다.



### 3월8일 뉴멕시코 17대 한인회장 후보자 선거 유세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합동유세가 3월8일에 있었다. 합동유세에 앞서 윤성열 침례교회 목사가 기도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커뮤니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이옥주 선관위원의 사회로 합동유세가 시작되었다.



### 3월21일 코윈(KOWIN), 타주서 온 환자들 가족에 음식으로 봉사

코윈 뉴멕시코지회(회장 박광중)는 3월21일(화) 저녁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of the Southwest에서 운영하는 타주에서 온 환자들의 가족을 위해 불고기, 만두 등 한국 음식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했다. 박광중 회장, 문영란 회계, 이성희 씨, 김옥선 씨 등이 참여했다.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3월-4월)

### 3월23일 올 해 첫 번째 순회영사 업무

뉴멕시코주 한인회(회장 김영신)는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올해 첫 번째 순회 영사업무를 실시했다. 이날 순회 영사업무는 문지혜 총무 영사와 이항률, 변영희 행정관 두 명이 담당했다. 한인회에서 김영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서류작성 및 안내를 도왔다. 이번 영사업무는 여권 관련 20건, 위임장 5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3건, 가족관계 증명서 5건, 국적상실 5건, 국적 이탈 2건, 사망신고 1건, 상담 및 기타 16건으로 총 52건의 업무를 마감했다.



### 4월13일 시장후보 Lewis후원모임

4월 13일 오후 6시 앨버커키 시장 선거 후보 Dan Lewis(47세)의 유세 및 후원금 모금 모임이 The Garage(대표 조 마이크)에서 있었다. 한인회에서는 문상귀 회장과 조동훈 이사, 김영신 전 한인회장과 낸시 전 부회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후원자들은 시장 후보의 공약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갖었다.



### 4월22일 참전용사 제리 차프만씨 추모식

4월 22일 앨버커키 재향군인 기념공원에서 한국전 참전 재향군인회 회장이었던 Jerry Chapman 씨의 추모식이 있었다. 교회 대표 및 한인회 임원 26명이 참석했다. ( 5페이지 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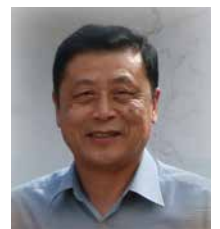
### 4월23일 민명희씨, 손자 돌 잔치

민명희(한인회 이사), John Collins내외는 첫 손자 John의 돌 잔치를 친지들을 초청하여 사무라이 식당에서 갖었다. 사진은 아기와 엄마 Monika Miskin과 민명희씨의 행복한 모습이다.



### 4월29일 나바호 인디언 선교지 방문

앨버커키연합감리교회 교우 25명은 파밍턴에서 나바호인디언 선교를 하고 계신 전종범 선교사의 사역지 방문을 실시했다. 전종범 선교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Four Corner지역 나바호인디언 선교를 해오셨다. 현재Ojo Amarillo UMC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



### 3월31일 Master Works of New Mexico 미술 전시회 개최

히스패닉 예술관 뉴멕시코 엑스포에서 3월 31일MasterWorks of New Mexico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4월 22일까지 개최된 이 전시회에는 유화, 수채화, 파스텔, 혼합 미디어 등 141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에 유승윤 작가가 함께했다. 파스텔 'Asian Pears, 9" x12"'와 'Morning in Jemez, 14" x18"'를 출품했다. 유승윤 작가는 풍경화가로서 현재 미국 파스텔 협회와 뉴멕시코 파스텔 협회에서 Signature Member로 활동하고 있다.



### 3월31일-4월2일 심령대부흥회

앨버커키 연합감리교회(담임 김기천 목사)가 3월 31일(금)부터 4월 2일 주일까지 '개인과 가정, 교회에 회복과 부흥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심령대부흥회를 개최했다. 덴버 동산 침례교회 이승신 목사를 주강사로 3월 31일 금요일 밤은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4월 1일은 '건강한 교회', 저녁집회는 교회의 본질' 4월 2일(주일, 오전 영어는 'Good Samaritan in me' 대예배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설교했다.



## 지혜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두 단어를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차이들을 특히 한자를 만든 옛 선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지식(知識)이란 한 자에서 知는 “안다, 이해한다, 기억한다”라는 의미이고 識은 “판별하다, 명확히 하다”란 의미입니다. 지식이란 알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해서 명확하게 엮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엮어놓은 이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런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잘 엮는 사람을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혜(知慧)는 앞에서 설명한 지식을 가리키는 知와 “슬기롭다, 총명하다”란 慧가 결합된 단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慧란 글자를 자세히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心자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에서 知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라면 慧는 가슴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知는 인간의 지성을 가리킨다면 慧는 인간의 감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냉철하고 분명합니다. 반면에 감성이 있는

사람은 포괄적이며 융통성이 있으며 따뜻하고 바릅니다. 사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빛조차도 너무 밝거나 너무 약해도 인간의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리 또한 너무 세거나 너무 작아도 인간의 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적인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지요.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은 지성이 아니라 감성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적인 사람은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은 지성과 감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식적인 사람은 지성 한 쪽만 완성된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은 지성과 감성 양쪽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 교단소식

## 2017년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소식

연합감리교회 소속된 목회자들과 각 교회 평신도 대표들이 매년 마다 모이는 한인 총회가 지난 4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엘에이 공항 근처에 있는 힐튼호텔(Hilton Los Angeles Airport)에서 열렸다. 이번 2017년 한인 총회는 에베소서 2:19-22절에 근거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합감리교회 내에 동성연애 문제로 인해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주요한 주제임이 틀림없다. 지난 총회와 다르게 이번 총회에서는 저녁 예배 때마다 동부, 중부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교회 목사님의 설교와 교인의 간증이 함께 어우러져 은혜와 감동이 넘쳤다. 또한 오전 시간에는 뉴멕시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김기천 목사가 에베소서 2:19-22절을 가지고 프락시스 성경공부를 삼일동안 인도하였다.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의 보고가 있었다. 특히 서부지역총회에서 선출된 동성애 감독에 대한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같은 기간 동안에 열리고 있었기에 조영진 감독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총회원들의 기도를 부탁했었다. 그리하여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결정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결정을 각 교회에 알리기로 하였다. 이번 총회를 준비한 임원들은 주로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중북

부 지역 목사님들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번 총회를 주최한 캘리포니아 지역 목회자들과 교회들, 각 기관들의 헌신과 봉사도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총회 회원들이 이동할 때마다 각 교회에서 차량으로 봉사를 하였고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 여선교회와 LA 연합감리교회에서 식사제공을 해 주었다.

총회가 끝난 다음날(28일) 뉴저지에서 열렸던 연합감리교회 사법 위원회를 통해 콜로라도에 있는 올리벤토 감독(Bishop Karen Oliveto)이 교회법을 어긴 것으로 판결이 났다. 결정문 가운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연합감리교회 법에 따르면 모든 목회자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결혼관이나 동성애에 관한 이해도 연합감리교회가 규정한 삶을 지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연합감리교 목사의 의무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공개적으로 동성애 감독이라고 표명한 올리벤토 감독(Bishop Karen Oliveto)은 그러한 감리교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교회법을 어긴 것이다.” ■





## 그리움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정초에 고국의 풍경이 담긴 전자 메일 하나가 들어왔다. 환한 아침 햇살을 받는 눈 내린 산골 마을의 아름다우면서 평화로운 경치가 단박에 마음을 사로잡는다. 초가 지붕 위에 소복하게 쌓인 하얀 눈이 까만 기와 지붕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오랜만에 보는 겨울 대숲과 솔숲도 정답기만 하다. 아침 손갈을 놓자마자 얼음판으로 내달렸을 아이들이 텃논에서 얼음을 지치고 있는 모습까지... 어느 사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시골집이 그랬다. 논농사를 주로 하던 곳. 아버지는 추수가 끝나기 무섭게 머슴에게 짚으로 마람을 엮게했다. 새로 이어 놓은 초가 지붕은 색깔도 선명하다. 처마 끝에 길다란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렸어도 초가 지붕 밑은 늘 따뜻하고 아늑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얼음 위에서 쫘쫘 언 손발을 아랫목에 넣어 녹인다. 가을걷이 후에 물을 담아 두는 무논이 없어 우리는 미나리짬에서 얼음을 지치고는 했다.

사방이 논밭이라 둘러보아 언덕 하나 없는 곳에서 자란 나는, 멀리 단아한 정취를 자아내는 산골 마을의 경관을 유난히 좋아했다. 저녁놀이 붉게 타오를 무렵이면 초가집 굴뚝에서 뭉게뭉게 피어 오르는 연기가 유난히 내 시선을 끌었다. 한없이 평화롭고 아늑하다. 식구들의 저녁을 정성껏 준비하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닭장 문을 닫아주고 나면 아빠는 방으로 들어 애들과 함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를 나누겠지. 조용하고 푸근하며 사랑이 숨쉬는 곳.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지만 그곳에는 정이 넘친다.

고향 마을은 인심이 후한 곳이었다. 경사나 애사가 모두 운동네 일이었다. 일손을 거드는 것 말고도 찰밥을 찌 가고, 막걸리를 담가 가며, 콩나물을 길러 가고, 팔죽을 쑤어 가는 품앗이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다. 혼인 잔치가 있을 때는 큰 마을이 온통 들쭉였다. 떠돌이 장사꾼들도, 동냥아치들도 많이 꺾이는 오곡이 풍성한 마을이었다.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고향이 시골인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다. 시골은 자연이고 흙이다. 나는 흙 속에서 자랐다. 비만 내리면 질척대는 진흙탕에서 장화를 신다가, 나중에 나온 반장화의 편의성에 놀라던 기억이 새롭다. 아버지는 봄이면 머슴과 함께 마당을 새로 했다. 여덟 마지기 한 배미 가랫는 바닥에서 파내어 온 흙을 잘 반죽하여 고루 덧입혀 놓은 뒤 되직해지면 내가 조무래기들을 모아 짓밟아 다졌다. 마당질은 물론 생활의 공간이기도 해서 항상 말끔해야 되었던 것이다. 한여름 밤이면 동무들과 멍석에 누워 하늘의 별을 헤던 때가 고스란히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

소와 물고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것들이다. 황소 한 마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꺾 부리지 않고 맡겨진 일만 하는 성실함에도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두 눈만 꺾벼거릴 뿐 초연한 자세. 그늘에 비스듬히 앉아 눈을 지긋이 감고 되새김질하던 소는, 마치 갓 쓴 노인이 눈을 감고 정자에 앉아 부채질하는 모습이였다.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물고기들이 살았다. 물고기가 갓 사이를 떼지어 몰려다니던 둥벙이나 수로는 천연 어항이었다. 벼를 베기 전에 물을 빼려고 논바닥에 물길을 만드는 '물개치기'를 했는데, 그때면 붕어와 메기들이 수없이 물을 따라 내려와, 주워 담기만하면 되었다. 두레로 둥벙을 품어 가물치나 잉어도 잡아서 더운 여름철 농사에 지친 일꾼들의 원기를 되찾는 데 썼다.

내 인생은 좁은 논두렁길에서 시작되었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이 걷기라던가. 쏘다니다 보면 개구리, 메뚜기, 뱀이 놀라서 황급히 길을 비켜주는 바람에 미안해질 때도 많았다. 가을에는 참새를 쫓고, 겨울에는 쥐불놀이를 즐겼다. 혼자 걷는 맛을 무엇에 비하랴. 전원 풍경을 마음껏 즐긴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때다. 자연과 하나 되던 그 배회는 두고두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 주말이면 빠지 않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의 땅에 새길을 닦거나 익숙한 길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표점을 찾아내게 해주었으며, 얼마 전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걷는 명상으로 안내해주었다.

자식들과 가까이 살려고 정년 퇴직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온 지 십 년이 다 되어 간다.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야 하겠기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다스린다. 마음에 끼는 먼지는 가끔씩 여행으로 털어 버리고, 읽기와 쓰기도 즐긴다. 진정한 마음속의 고향을 찾으면 어떤 땅도 낯설지 않고, 어디를 가도 이방인이 아니라는 말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산다. 이제 그리움으로나 찾아야 하는 고향, 철없던 어린 시절의 고향을 누군들 잊을 수 있을까. 향수에 시달리는 마음이 자꾸만 나를 옛날로 되돌린다.■



## 집을 뜻보이게 하는 방법

**김영신**

부동산 중개인/전 한인회장

올해들어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Trend는 'Update, Upgrade'입니다. 구매자들은 가격보다도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Update)이 되어있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집을 팔아야 하는 계획에 있다면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려 하면 많은 경비가 드는 관계로 여유있을 때 서서히 하나하나씩 바꿔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고객이 집을 꾸미며 요즘 유행에 맞춰 돋보이게 해놓는게 판매 / 구매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집이 판매되는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판가름하게 합니다. 집을 뜻 보이게 업데이트 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점검표

- 집안의 가족 사진 수를 줄이십시오.
- 냄새가 좋은 향목을 사용하여 집에 좋은 냄새를 만드십시오. 쿠키를 굽는다든지 등등으로. 나쁜 냄새는 일부 구매자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및 외부의 모든 창을 청소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이동시켜 더 많은 공간과 열린 공간을 만듭니다.
- 모든 카펫 및 단단한 목재 바닥을 진공 청소하십시오.
- 집 전체 타일과 그라우트를 문질러 닦아내십시오.
- 매일 쓰레기를 비워 냄새를 줄이십시오.
- 벽의 모든 구멍을 수리하십시오.

### 집 내부

#### 욕실 :

- 모든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세면 도구를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으십시오.
- 핸드 타올 병 또는 핸드 비누와 함께 깨끗한 비누를 남겨둡니다.
- 수건 걸이를 매일 3 분의 1로 접습니다. 필요한 경우 새 수건을 구입하십시오.
- 샤워실 및 욕조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제거하십시오.
- 화장실 뚜껑을 닫아 두십시오.
- 쓰레기통을 숨기고 시야 밖으로 보급품을 청소하십시오.
- 샤워 커튼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체하십시오.
- 균열 또는 껍질이 벗겨진 부분을 수리하고 곰팡이가 나는 부분을 닦으십시오. 필요한 경우 페인트 하십시오.
- 샤워를 하고 욕조 가장자리에 실리곤 코일을 새 것으로 장식하여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이게 하십시오.

#### 침실 :

- 매일 침대를 만들고 필요하면 침구를 교체하십시오.
- 야간 스탠드, 옷장 등을 깨끗이 합니다.
- 바닥에서 모든 옷들을 치우십시오.
- 여분의 책, 잡지 또는 기타 항목을 침대 밑에 보관하십시오.
- 옷장 문을 닫아 두십시오.
- 애완 동물 먹이 그릇을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 식당/부엌:

- 식탁을 치우고 중앙 조각이나 기타 장식용 물품만 남겨 둡니다.
- 부엌 카운터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 냉장고 도어에 부착놓은 모든 그림, 자석, 메시지 등을 제거하십시오.
- 깨진 타일이나 카운터의 느슨한 모서리를 수리하십시오.
- 스토브와 오븐 청소 버너 팬이 심하게 얼룩져 있으면 교체하십시오.
- 부엌 싱크를 깨끗이 하고 비우십시오.
- 모든 비누, 스폰지 및 보급품을 시야 및 싱크대 아래에서



Photo Source: Capertown Kitchens, Milford, MA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I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수필

## 성가합창의 감동과 검증



이태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성가대 지휘자/원로목사

합창은 가사가 있으므로 단순 음악인 기악과 달리 시간예술과 언어예술의 조화이다. 또 기악과는 달리 여러 사람의 음성의 조화이므로 지나친 기계적 테크닉과 무리한 표현을 남용하는 운영은 피하는 게 좋다. 물론 곡과 레퍼토리의 분위기에 따라 가사 내용보다 테크닉적인 곡이 한 두 곡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집중 연습을 더 하면 된다.

찬양합창 음악은 성도들 가운데서 음악적/성악적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선정하여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림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경배/찬양의 기능과 함께 음악/가사를 통해 성도들의 찬양정서 함양 및 가르침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음악의 백미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합창음악은 일반회중을 소외시키면서 귀족화 되면 안 된다. 가톨릭 합창음악의 문제가 그것이었다. 오늘날 기독교계 일각에서 가톨릭 미사곡을 연주하는 현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회중 없는 교회란 있을 수 없고, 회중 없는 찬양대란 무용지물! 그래서 찬양합창곡은 지나치게 음악적/예술적/미학적/기교적/인위적이거나 가사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가사전달이 모호하거나 해선 안 된다. 회중과의 아우름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회중과 한 마음이 되도록 힘쓰는 합창이 바람직하며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찬양/성가곡 합창은 무엇보다 성경구절을 활용한 가사를 최대한 살려야 옳다. 그래서 지휘자는 무엇보다 선곡에 있어 하나님과 회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고수해야 옳다.

곡이 아름답고 시가 문학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음악이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거듭난 작가들,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작곡가/작사자가 영감 속에서 쓴 작품들이다. 그러나 그런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이다. 한도가 있다. 그래서 영감스런 곡이든, 덜 영감스런 곡이든 연주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찬양대란 존재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합창음악에서 예술과 미학을 빼 버린다면 문제는 크다.

예술 없이 합창음악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 여러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하는 합창음악엔 안팎의 규범이 필요하며 그 노름(norm)의 일부가 기법과 예술이다. 예술은 창조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질서와 통일성-아우름이 있어야 한다. 뒤죽박죽인 것은 '혼잡의 예술' 즉 잡예(雜藝)일 뿐이다.

합창예술은 지휘자와 수많은 대원들이 함께 한 맘 한 뜻-일심동체 내지 혼연일체-이 되어 예술적 차원에 이르는 성악이지만, 찬양합창은 그보다 더 높고, 한 맘 한 뜻으로 영적 차원을 이뤄 나아가는 단계까지 바라본다. 그러므로

찬양합창에서의 예술적 배려는 밑받침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합창예술은 특히 성악이므로 음악과 문학의 두 분야가 결합된 일종의 종합예술이다. 고도로 정제된 시적 표현과 역시 고도로 훈련되고 정제된 음악적 표현이 만나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합창은 가사의 바른 투사(projection)와 음악의 예술적 표출이 조화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발성이나 울림소리와 어울림이 안 되면 합창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찬양합창은 성경말씀 즉 복음을 내용으로 하기에 더더구나 가사 표현은 중요하다. 성도나 비신자가 진리 전달을 제대로 받아야 쉽게 한 맘을 이루기 때문이다. 물론 성령께서는 경우에 따라 가사를 이해 못하더라도 음악만으로 공동영감을 받을 수 있게 이끄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상례는 아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며 방언도 통역이 필요하다.

합창은 독창과는 물론 다른 성격의 성악이다. 진동수가 서로 다른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등의 목청들이 한데 어울리기 때문에 그만큼 통제가 쉽지 않다. 더욱이 찬양합창은 단지 조화만도 어려운데 예술적/영적 차원까지 끌어 올리기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게 된다!

찬양곡 합창을 지휘하면서 성경적인 가사와 가락과 화음에 감동이 되어 몸에 소름이 일어나는 견갑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이것은 음악이 대체로 청각을 통해 정서에 호소하는 예술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교회음악에서 성경 가사를 음미하는 머리감각 내지 혼적인 감각이 결들여지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면 영적인 감각에도 호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감동은 지휘자나 대원들만의 것이어서 안되며 온 교우들이 나뉘야 할 정서다.

그렇다면 가사 전달이 되도록 완벽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찬양대석 주변의 적절한 곳마다 음향학적으로 배려된 마이크로폰, 방음판 등을 배치하거나 주보에다 그 주일의 해당 악곡의 가사 전체를 간지 등으로 신는 배려 등을 해야 옳다. 설교자는 한 명이 마이크로 또렷하게 발언하면 그만이어도 찬양대는 서로 다른 진동수로 발성하는 인원이 많기에 소리 울림이 섞여 자연히 그만큼 가사 전달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도자가 인지해야 옳다.

특히 벽이 대리석 등 돌로 된 전통적인 교회 건물은 소리가 땅 땅 튀기므로 가사발음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극난하다. 그 울림이

>>13 페이지로 계속>>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7년 뉴멕시코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 2-4 공공보조혜택 (Medicaid/SNAP/Medicare Savings Programs)



이견우는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다. 부모 초청으로 아내 김직녀의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나빠진 경제사정으로 점점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하루는 친구 강연오를 만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수입은 제한적인데... 아이들 학비 걱정, 부모님 생활비 챙겨 드리라... 나이가 드시니, 병원비도 걱정이고...” 이때, 강연오는 예전에 친구에게서 들은 것이 떠올랐다. “내 친구는 부모님 걱정 하나도 안 하던데...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하던데... 너도 한 번 확인해봐!”

이 견우는 눈이 번쩍 뜨였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신데도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까?”

### 전문가의 한마디

#### 공공복지혜택(1) 일리노이주의 복지국 (DHS)

메디케이드 (주 정부의 의료 보조 프로그램)와 푸드 스탬프로 잘 알려진 SNAP 프로그램, 그리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개인비용 부담을 지원해주는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QMB/SLMB/QI-1)은 주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복지 혜택 프로그램들입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주정부 복지국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 받은 지 5년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강연오의 말을 듣고, 이견우는 한인업소록을 찾아 한인 사회 복지 기관에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방문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는 노년이 되어 저희들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으시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워 보험을 구입해 드리지도 못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견우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부모님께서 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했다.

### 전문가의 한마디

#### 공공복지혜택(2)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소득이나 자산이 주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보조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 취득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소득은 2014년도 기준으로 월 \$973 미만, 2인 가족인 경우 월 \$1,311 미만인 경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자산 기준은 1인 가족 \$2,000 미만, 2인 가족 \$3,000 미만입니다. 여기서 가구 자산이란, 가족 구성원의 예금 통장 (Checking/Saving), 양도 가능성 정기 예금 증서(CD) 주식, 채권, 생명보험 중 현금 가치 금액, \$1,500 이상의 장례예치금,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차 1대와 살고 있는 집 1채는 자산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사 진료, 병원 입원, 처방약 구입, 각종 검사 등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양로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7년도 자격 규정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medicaid-help.org](http://medicaid-help.org) 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글은 2014년 일리노이주 교민을 위해 쓴 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뉴멕시코주의 경우 2인 가족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자의 소득 상한은 월 \$1,354 이나 이 숫자 역시 곧 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편집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받으면서 이견우는 속으로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정부의 다양한 공공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식료품비를 보조해 주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 전문가의 한마디

#### 공공복지혜택(3) 푸드스탬프 (SNAP)

푸드 스탬프로 잘 알려진 SNAP 프로그램은,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링크 카드에 매월 일정 금액이 적립되고, 그것으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월 소득과 가구자산을 참고하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일반 가정은 가족 수 1인일 경우 월 소득이 \$1,245 미만, 2인일 경우 월 소득이 \$1,681 미만이어야하며, 가족 수에 따라 그 소득 기준 금액이 높아 집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연장자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가족 수 1인일 경우는 월 소득이 \$1,915미만, 2인일 경우 월 소득이 \$2,585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 자산 기준은, 일반 가정의 경우 \$2,000미만, 60세 이상 연장자 혹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3,250 미만의 자산을 소유하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링크 카드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과 정원에서 식품용으로 기를 수 있는 식물의 씨앗을 포함합니다. 살 수 없는 것들은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Ready to eat), 가게에서 데워져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비타민, 약품, 애완견 음식, 식품이 아닌 것들, 술, 담배등입니다.

이견우는 강연오에게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 했다. “정말 몰라서 못 받았던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옛말을 새삼 경험하게 되더라니까.” 이견우는 연신 싱글 병글 이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무언가 해드린 듯한 생각에 괜히 우쭐해지기까지 한다. 강연오에게도 “너도 한 번 가서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봐, 혹시 아니,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지!”

다음날, 강연오도 사회복지사를 만나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았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장인 이온달씨와 장모 조평강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계신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 기관을 나오는 강연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장인 장모님도 정부의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혜택을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전문가의 한마디

#### 공공복지혜택(4)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메디케어에는 파트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파트 A (병원보험)와 파트 B(진료보험)입니다. 메디케어는 무료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월 보험료, 공

재금, 공동부담금 등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내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주 정부에서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정부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절약 프로그램에는 QMB/ SLMB/ QI-1 라고 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지는 가족의 월 소득과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2014년도 기준으로 QMB의 경우는 월 소득 \$973 (부부일 경우 \$1,311), SLMB는 월 소득 \$1,166 (부부일 경우 \$1,572), 그리고 QI-1은 월 소득 \$1,312 (부부일 경우 \$1,769)입니다. 자산 기준은 세 프로그램 모두 개인 \$7,160, 부부의 경우는 \$10,750 입니다. ■

### 성가합창 >>11 페이지에서 계속>>

신비로움지는 몰라도 진리 전달엔 별 도움이 안 된다. 자연히 전문가의 최신 음향 분석과 새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음악은 기교와 표현이 합일된 시간예술로써 음향/진동/음색/가사 등으로 한꺼번에 청각에 호소하는 만큼 정서에 직접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찬양은 사탄이 가장 악용하는 예술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음악정서에도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음악적 감동과 성경적 영감을 혼동해선 안 된다. 아무리 전문 합창단이 성가를 잘 연습하여 고도의 기교와 표현으로 완주해도 신자들에게 별 감동이 없는 때가 있다. 기도와 기름부음이 결여된 탓이다. 그러나 음악적인 감동을 받을 순 있다.

그렇다면 찬양음악의 최고이상인 참된 영적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님의 기름부음으로부터! 그 기름부음은 오직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로써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찬양곡을 연습/연주 하기 전 온 대원들이 일심동체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옳다. 그래야 찬양곡을 들으면서 청중의 삶이 변화하거나 환자가 낫는 등의 이적이 일어난다. 연습 때마다 찬양대원들은 기도로써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여야 한다. 특히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나 영의 찬양을 할 때 뜨거운 영감이 넘쳐날 것이다.

참된 교회음악의 최고 이상은 영적 감동과 성령님의 임재가 가사에 녹아 든 성경 말씀과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 주를 앙모하는 자 #1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 : 16 절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본 받기를 원하는 몇 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분들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분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인품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다시 말해보려고 한다. 그 첫번째 인물은 에스더 이고 두번째는 여호수아, 세번째는 바나바이다.

예수님이 3 년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역경을 겪으셨다. 특별히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킨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때문이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누리는 권세를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시대에 강박한 마음이나 굽히지 않는 고집불통의 딱딱한 율법주의자들이 있거나 없을까 걱정된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생활 중에서. 우리교회 역사를 살펴보다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지난 35 년동안 계속 내려 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자 한다. 하나님은 정말로 순종하는 종들이 띠를 띠고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격려하시고 있음이 땀뻑하다고 느낀다. 우리교회 부지를 헌납한 분도 있었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몇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기적적으로 잘 풀려서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것을 우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송드리고 싶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

자 여러분들 에스더의 아주 지혜롭고 대담한 용단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줄 안다. 에스더가 왕후로 책봉이 된 직후에 왕의 노여움이 풀려서 하만을 높은 지위로 두니까 하만은 자기가 페루시아 왕국의 제 2인자가 된것을 나타내기 시작했었다. 내가 아는 속담에 “민취 썩대 오른 기분으로 논다”는 말이 있다. 하만의 오만 방자한 행동이 바로 민취의 썩대노리와 같다는것이다.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때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꿇어 절을 했지만 모루두개는 꿇지도 않았고 절도 안했다고 했다. 이일에 분개한 하만은 모루두개가 유대인 인것을 알고 모루두개만 죽이는것이 아주 경한 벌이기 때문에 온 나라에 흩어 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만들고 왕에게 허위사실을 고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이 끔직한 도륙날짜를 택하고 페루시아 각도에 왕이 서명한 조서를 보냈던 것이다. 이사실을 알게된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사실을 고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줄것을 요청하라고 했지만 에스더는 왕궁의 규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대답했고 그후 모루두개의 간곡한 청원이 4장 14 절에 있듯이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고 다시 권 했더니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말에 힘을 얻어서 유대민족을

살리는 용감한 묘책을 진행해서 결국 성공 했던 것이다. 만약 에스더가 낙심하고 우유부단해서 용단을 못 내렸더라면 그 끔직한 사태는 벌어졌을 것이다. 참으로 아슬 아슬한 상황이었다.

우리들이 다 알듯이 구약의 룯기와 에스더서는 주제가 여자 라는 것이다. 퇴폐풍조가 있었던 때에 이런 성경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이한 일이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많은 유대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갔지만 페루시아의 고레스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거기에 잡혀 와 있던 유대인 포로들을 포로로 대하지 않고 선한정책을 써서 세차례의 귀환을 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중에 에스더와 같은 유대 여인이 왕후 까지 되었다는것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본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될것이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지만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개는 그녀를 양녀로 삼아 가정교육을 잘 시켰던것 같다.

아하수에로왕의 격분한 감정이 가라 앉자마자 신하들은 서둘러서 새왕후를 빨리 뽑기를 위해서 전국에서 미녀 모집령을 내리고 일을 서둘렀다. 왜냐하면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와스디를 다시 등장시킨다면 그들이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것 이라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Miss Universe에 참석할 Miss Korea를 뽑는 미인대회를 하는것을 몇번 보았다. 미인들이 많은데 어떤때는 엉뚱한 여자가 선발되느것을 보며 실망하기도 했다. 심판관들이 보는 눈이 다르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 이 페루시아 왕궁에 뽑혀온 미녀들은 무려 일년동안 몸치장을 하고난 다음에야 왕을 만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자체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나 그 왕국의 규례니 어쩐라.

나는 에스더가 얼마나 예뻐할까 상상해 보게 된다. 창세기에 이브를 창조하실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안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창조한 이브를 대하며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고 고백했던것이다. 아하수에로왕도 미인중의 미인을 찾았을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기에 왕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 잡았을 것이다. 많은 지원자들이 온갖 수단을 다 부려 보았겠지만 모두 헛 수고가 되었다. 에스더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였다는것은 에스더 5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5 장3 절에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 같으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했을것 같은데 안그랬어요. 잔치를 베풀겠으니까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했지요. 얼마나 침착한 태도입니까! 하만은

>>17페이지로 계속>>



특별 기고문

# 뜨거울 땐 몰라요

차학주

달라스/양로원 사역 목사

나이 오십 중반을 넘기니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그 중의 하나가 건강입니다. 타고난 약골도 아니지만 또한 타고난 강골도 아니어서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요즘 들어 부쩍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덜 먹기’입니다. 몇 년째 계속해서 소금을 덜 먹으려고 무진 애씁니다.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내가 맛깔난 음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와는 조금 다른 입맛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덜 짜게 먹는 대신 아내는 약간 짠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소금 조금씩 넣으라!’고 하도 잔소리를 해대니 이젠 아예 음식 할 때마다 간을 보라 합니다.

할 수 없이 국이고 찌개고 끓일 때마다 간을 봅니다. 그리곤 ‘짜다, 싱겁다’ 옆에서 간 큰 남자 노릇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싶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분명 간을 볼 땐 그렇게 짜지 않았습다. 참으로 적당한 듯해서 ‘간 잘 맞췄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식은 다음에 먹으면 다시 여지없이 짠 겁니다.

한번은 하도 이상해서 ‘혹시~~~ 나 몰래 소금 더 넣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아니다’라고 펄쩍 뛩니다. 물론 소금을 더 넣었을 리는 없습니다. 아내도 건강 때문에 소금기를 빼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기를 수십 번. 아무리 음식 만들 때마다 간을 보고 감시해도 여지없이 국이고 찌개고 식으면 짜지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다.

그러다가 우연히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는 맛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뜨거운 맛에 가려져 제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더욱 음식이 뜨거울 때는 뜨거움 때문에 짠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는 맛을 제대로 알지 못 한다-대신 식은 후엔 알 수 있다.’ 이 원리는 신앙(혹은 믿음)과도 깊은 관계가 있지 싶습니다. 신앙이 뜨겁고 믿음이 견고한 듯 할 때는 자신의 영적상태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모르고 그저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의지가 앞을 가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으면 알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가 식으면 음식의 제 맛을 알 수 있듯이 열정이 식은 후 잠시 지나면 자신의 영적상태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눅24:13-35). 예루살렘에서부터 석양을 가슴에 안고 터벅터벅 내려갑니다. 고향 떠날 땐 청년 예수께 모든 소망과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힘도 못쓰고 허무하게 죽은 후 모든 소망을 잃었습니다.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허탈함뿐입니다. 단지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한 때는 세상을 전복(?) 시킬 듯 한 기개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 때 세상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저 집 잃고 보슬비 맞는 비둘기 신세입니다.

열정이 앞을 가릴 땐 몰랐습다. 패기가 충천할 때도 몰랐습다. 그러나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오니 자신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초라하고 허탈하고 허망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적침체가 온 겁니다. 찌개가 식은 후 느끼는 짠 것처럼 사명의 뜨거움이 사그라진 듯 하니 감춰졌던 자신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렇게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마음 달랠 길 없어 그저 과거 이야기로 옛 영화만 추억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허탈한 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던 일곱 명도 마찬가지입니다(요21:1-14). 대충만 봐도 갈릴리 출신들이 그들은 출세와 영화의 대명사인 예루살렘에서 시골 촌구석으로 다시 왔습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마28:10)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그들은 낙향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고향으로 패배자처럼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곤 먹고살기 위해 다시 그물질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일곱 명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요21:2-3).

모르긴 몰라도 일곱 명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침묵이 그들을 눌렀을 겁니다. 조용한 그러면서 무거운 침묵. 차마 누구하나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 그걸 깬 것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열정과 패기의 시간이 지난 후 평정을 찾은 겁니다. 평정을 찾으니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보니 당장 급한 게 먹거리 문제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다시 그물질을 나갑니다.

## 에베소서 3장 교회론

에베소서 3:1-13, 이방인을 위한 바울 사도의 직무

“1 이런 이유로 여러분 이방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나 바울은---, 2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내 직무에 대하여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3 하나님께서 그의 감추인 계획을 내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가 전에 간단히 적어 보낸 일이 있으므로 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5 그 비밀이 지금은 성령에 의하여 주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지만 전에는 그것이 그런 모양으로 인간의 자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6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방사람들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7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의하여 복음의 일군이 되었습니다. 8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한량없이 부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사람들에게 전하여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에 함께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것입니다. 10 이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며 1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 세우신 영원한 경륜을 따라 된 것입니다. 1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 갑니다. 1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용기를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멸시전대받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 제 3 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을 2:11-22절에 이어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교회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서로 아주 다르다고 주장하는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같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아 하나가 되는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모시는 한 가족이 되는 곳’, 더 나아가서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되어(엡1:10,

**현용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2:6, 4:6, 골1:20) 한 공동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주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은혜와 비밀의 경륜입니다. 나타나시고 실현된 비밀이 곧 예수님이시고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바울과 같이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자기와 같이 가장 작고 초라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은혜 받아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부름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받는 멸시 천대 환난은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은 예수께서 자기를 통해 세우신 모든 교회 특히 이 서신서에서는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 에베소서를 2장까지 써오다가 3장을 쓰다 말고 잠시 지난 십수년간의 자신의 선교여행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잠깐 빛을 놓았습니다.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행 20:24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고 비장의 각오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한결같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의 몸에 동참하여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머리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와 땀과 열정을 통해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령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 이순간까지 건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계속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예수안의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들림 받습니다. 각각 흠어져 일을 할 때는 각각 한 방울의 수는 방울이지만 모이면 다 하나의 수는 덩어리가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례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도 주름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 땅의 하늘의 신령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오늘날의 지성소가 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 조심껏 정성껏 섬겨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14-21, 교회 완성을 위한 중보기도와 찬양

“14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15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16 아버지께서 그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 지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이 사랑속에 뿌리를 박고 사랑의 터전위에 세워지게 되어 18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 또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여러분이 충만케 지기를 바랍니다. 20 그러나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21 교회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두 손을 하늘 향해 들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생 성전안의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도 1년 중 단 한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 갈 수 있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바로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보좌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존경하는 성도라면 오늘 날의 지성소인 교회안에서 불손하게 또는 경박하게 행동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돌을 깎거나 다듬으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날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지성소)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히 나아 갈 수 있습니다(3:12).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 권세또는 제도적 권력의 위세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앞에 예의를 갖추 수는 있어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한 일이 됩니다.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그를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께 의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교회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모든 족속은 물론이고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으로 부터 각각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 부탁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능력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세상 끝날 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서로 사랑의 매는 줄로 단단히 결속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이름 그대로 결속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넷째 성부 성자 성령 3위 일체 하나님과 그의 한이없는 사랑을 아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축복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며 부요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주세요 주세요 기도에서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도록 감사합니다란 기도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기도로 바울사도에게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도리이겠습니다. ■

## 주를 앙모하는자 >>14페이지에서 계속>>

에스더의 속마음은 모르고 왕과 자기만을 잔치에 초대하였다는 만족감에만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은 에스더의 첫잔치에 참석했던 왕이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한 신하 더러 읽게 했는데 모르드개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아내서 저지 시켰다는 기록을 읽었을때 왕이 모르드개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고 질문 했고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다고 신하는 말했던 것이다. 결국 이사건때문에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 되었고 유대민족을 멸절직전에서 구하는 큰 업적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민족간의 동화운동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듯 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유대민족이 페르시아에서 당할뻔했던 멸절 음모는 용감했던 에스더의 지혜로운 대책으로 부림절을 세우게 되었다. 룿은 모압여인으로 자기 민족의 전통을 완전히 버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잘 받아 드리고 동화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한세대를 감당할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이 유월절의 유래도 알고 있듯이 애급땅에서의 노예생활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기독교인들은 강림절 ( Advent ) 을 지키며 성탄절을 맞고 또한 사순절 ( Lent ) 을 지키며 부활절을 맞는다. 유대인들이 이 아슬아슬하게 당할뻔 했던 도륙 사건을 저지시켰던 사실을 기억하며 부림절을 지키는 것을 볼때 에스더는 유대 역사에서 빼 놓을수 없는 여걸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우리 교회에도 “ 죽으면 죽으리이다 “ 라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시 말해서 주를 앙모 하는자 들이 있다고 믿는다 !!! 아멘 ■

## 2017년 ‘인간의 성’ 혹은 ‘동성애’ 이슈에 대한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입장

2017년 LA에서 개최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최근 교단일치의 뿌리를 흔드는 '인간의 성' 혹은 '동성애' 이슈와 관련하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의 '언약'인 헌 장정이 밝히고 있는 입장을 지지한다는 2015년 한인총회의 성명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에 의거하여 현재 교단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에서 다루고 있는 Karen Oliveto (현 Mountain Sky Area 주재감독)의 감독선출이 장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된 위법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4월 27일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장 김광태)

2015년 한인총회에 선언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는 2016년도 교단총회 (General Conference)를 앞두고, 교단 분열의 조짐마저 불러 일으키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연합감리교 장정은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를 하나로 튼실하게 묶어주는 끈이며, 우리들의 살아 숨쉬는 역사요, 믿음의 고백이다. 현 장정은 분명한 언어로 동성애,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의도적으로 장정을 거부하는 하려는 도전이 있다. 이는 장정이 개인의 신학적 입장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도 된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장정을 각 나라 및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고치려는 움직임 역시 장정의 보편적 가치를 상대화 시키려는 시도이다. 만약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고, 현직 목사가 동성애자 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해도 제재할 수 없도록 장정이 개정 된다면,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엄청난 갈등에 직면해 전도와 선교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현 상황 속에 한인총회가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인교회를 지키는 사명'이다.

한인총회는 더 이상 '동성애 이슈'에 관한 소모적인 찬/반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될 때 임을 자각한다. 이에 한인총회는 전체 연합감리교회와 교단에 진정한 웨슬리 정신의 회복을 촉구한다.

- 우리는 연합감리교회가 '성서적 경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교단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우리는 한인 연합감리교회로서 130년 전 조선을 찾아와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의 순교적 신앙의 뿌리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우리는 연합감리교회가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120 여년 전부터 교회개척 및 지원에 선 구자적 역할을 감당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우리는 동시에 성서의 권위와 성결을 기반으로 한 연합감리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시도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우리는 한인교회 미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사안들에 대해서 조차 이민교회와 소수민족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차별'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에 연합감리교 한인총회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내년 총회가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 사랑으로'의 정신을 존중하길 바란다.
2. 우리는 현 장정에 기록된 동성애,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목사안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성서적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정한다.
3.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가지는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4. 우리는 연합감리교 공동체 안에 '동성애 이슈'에 대한 분열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 동시에 이 사안이 교단 존재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인식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5.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걸림돌이 되는 비생산적인 찬/반 논쟁이 이제 중단 되길 바란다.
6. 우리는 '동성애 이슈'로 혼돈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
7. 우리는 '동성애 이슈'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교단 분열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8.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교단총회가 '동성애 이슈'와 관련 첨예한 찬/반 논쟁을 불러올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선택을 각 연회에 맡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9. 우리는 동성애,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교회들에게 자유롭게 연회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것을 요청한다.
10. 만약 한인교회가 미래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한인 총회는 불가피하게 선교적 필요에 따라 교단 안에서 언어와 문화적인 특성을 인정받는 창의적인 구조를 마련하도록 한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

한인총회 미래 대책 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목사





## 뜨거울 땀 몰라요 >>15페이지에서 계속>>

엠펙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던 일곱 명. 이들의 모습이 어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끝난 후 찾아온 본연의 모습. 그래서 더욱 낙담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낙담하며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 함께 해 주셨고, 그물질 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사명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국 식은 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어깨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발걸음 옮기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 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지금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입니까? 국 식듯 식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식은 후가 자신의 참된 맛(?)일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앞을 가려, 패기가 끌어올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03/21/2017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 하는 일곱명을 본 후에 차학주 드림)

사진: 오늘의 갈릴리바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http://home.kcmusa.org/disciples)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http://www.santafekorchurch.net)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p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http://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http://www.facebook.com/kumcabq/)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http://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30pm 금요일예배: 8:00pm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b>알버커키</b> <b>Albuquerque</b>	<b>Shogun</b>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b>Kelly Liquors #10</b> 4312 Coors SW (505) 877-2777	<b>GEM X Imports</b>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b>한국식품점</b> <b>Korean Grocery</b>	<b>A-1 한식 Cafe</b>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b>Kelly Liquors #14</b>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b>J-1 Import</b>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b>주님의 교회</b>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b>A-1 Oriental Market</b>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b>Sushi &amp; Sake</b>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b>Stadium Liquor</b>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b>NEXT Clothes/Gift</b>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b>주택용자 Loan Officer</b>
<b>Arirang Oriental Marke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Yummi Hous</b>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b>부동산 Realtors</b>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b>김미경 Mikyong Kim</b>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b>Kim's Oriental: 2306 Morris</b> NE ABQ (505-296-8568)	<b>건축/페인트 Painting</b>	<b>김영신 Yong Shin Kim:</b>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b>Hair &amp; Co(황경희)</b>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b>고산식 Lonnie Ko</b>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b>한인 식당</b> <b>Korean Restaurant</b>	<b>1st Choice Painting</b>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b>이준 June Lee</b>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b>Hair Dynamic(Ashley)</b>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b>치과 Dental Clinic</b>
<b>Arirang Restauran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공인회계사 CPA</b>	<b>세탁소 Dry Cleaners</b>	<b>Matthew Lee's Hair Style</b>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b>Rainbow Dental</b>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b>Asian Pear</b>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b>MTM Accounting Service</b>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Barbone's Cleaners</b>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b>Nob Hill Barber Shop</b>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b>Stewart P. Ahn 5920</b>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b>Fu-young</b>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b>리커스토어 Liquors</b>	<b>Executive Cleaners</b>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b>Plance Hair Salon(Tina)</b>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b>태권도 TaeKwonDo</b>
<b>Ichiban Japanese: 10701</b> Coors Rd NW ABQ (505- 899-0095)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Kitch Cleaners</b>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b>Salon 123</b> 7114 Menaul NE (505-872-0301)	<b>Dynamic taekwondo acad-</b> emy5850 Eubank blvd
<b>I Love Sushi</b>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b>Kelly Liquors #2</b> 5850 Eubank NE (505)291-9914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NE B-35 ABQ, NM 87111</b>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b>Jasmine Thai &amp; Sushi House</b>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b>Kelly Liquors #5</b> 6124 4th St NW (505) 828-1133	<b>의류 Clothes</b>	<b>The Garage 자동차 정비</b>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한의원 Acupuncture</b>
<b>Korean BBQ</b>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b>Kelly Liquors #7</b>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Best Outlet: 3300 San</b>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b>종교 Church</b>	<b>Dr. Chang: (장상순)</b>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b>Kim's Oriental</b>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b>Kelly Liquors #8</b>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b>Dot Clothing Co:</b>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b>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b>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b>Dr. James D Park: (박달규)</b>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b>Sakura Sushi Grill</b>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b>Kelly Liquors #9</b> 1903 Coors SW (505) 873-4477	<b>Dot Clothing Co</b>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b>갈릴리장로교회</b>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b>화랑 Gallery</b>
<b>Samurai</b>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b>Fashion USA</b>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b>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b>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b>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b>	<b>Park Fine Art Gallery</b>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505-764-1900)

##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아스트마운트505-286-3535  
www.dahnyoga.com

## 라스베가스 Las Vegas

##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출력: Los Alamos (505-662-9681)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 리오란초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 식당 Chinese Restaurant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 산타페 Santa Fe

##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

## 클로비스 Clovis

##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 백화점 Mart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 화밍톤 Farmington

##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 광고에 대한 알림

광야의 소리는 기고자 여러분과 교우 여러분들의 자원 봉사로 만들어지며 인쇄 비용(250부/월)은 광고주께서 베푸시는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광야의 소리를 후원해 주실분은 voiceofnm@gmail.com 또는 신옥주 권사 (275-9021)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voiceofnm](http://www.facebook.com/voiceofnm)  
[voiceofnm.kumcabq.com](http://voiceofnm.kumcabq.com)

##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7년 5/6월호

발행일: 2017.5.1.

발행인: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크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Sushi Hama**

Japanese Restaurant & Sushi Bar  
5:00-8:00 P.M. Daily

식당비즈니스를  
매매합니다

505-293-6055  
2918 Eubank NE  
Albuquerque, NM 87111  
(Corner of Eubank and Candelaria)

**C & 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앨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 Sat  
4:00-9:00 Sun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 (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

**metroPCS**

앨버커키 지역  
MetroPCS 딜러로 모십니다

MetroPCS는 미국내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폰 라인업을 갖춘 Pre-Pay Wireless 회사입니다. Cricket와 비슷한 구조이나 초 고속 무제한 T-Mobile Network로 시장을 석권합니다. 달라스에서는 10년전부터 이미 많은 한인 분들이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전체 달라스 물량의 60%를 한인들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새로운 Business에 참여하셔서 메트로 패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Dealer: 직접 새로운 Location을 찾으셔서 문의해주시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JAMIE KIM Tel: 505-401-9185 Email: [jamie.kim@tomorrowtelecom.com](mailto:jamie.kim@tomorrowtelecom.com)